

# 大學 器樂 音樂教育의 現況과 과제

金 會 永  
(曉星女大 作曲科)

## 1. 序 言

大學의 器樂 音樂教育은 전반적인 음악 理論과 기악 음악에 대한 體系의인 이론 교육과 더불어 藝術家를 양성하는 중요한 專門 音樂 教育 중의 하나이다. 이는 단순한 技術(technique) 指導가 아니라, 기악 음악을 통하여 演奏의 技能을 숙달시키고 창조적 表現 能力을 신장시키며 풍부한 음악 경험을 통하여 풍요롭고 윤택한 音樂 藝術人을 육성하여 우리 주변의 情緒 순화와 국가 社會의 예술 文化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음악 예술인을 위한 교육이기에 더욱더 그 중요성을 절감한다. 그러므로 기악을 專攻하는 학생들이 보다 풍부한 음악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하며, 이러한 음악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演奏上의 기초적인 기술면이나 계통적인 지도가 좀더 具體的이고 發展的으로 쌓아 올려져야 하므로 이 교육은 보다 進步된 專門性이 많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진보된 기악 음악 교육을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각 음악 대학에 있는 器樂科와 일반 대학의 音樂科 안의 기악 전공 등의 교육 現況과 當面한 課題를 살펴보는 것은 큰 意義가 있는 일로 생각된다.

## 2. 器樂 音樂教育의 現況과 當面課題

### 1) 器樂 音樂교육의 現況

현재 우리나라의 大學 음악교육을 담당하는 學科로는 聲樂科, 피아노과, 作曲科, 管絃樂科, 國樂科, 宗教音樂科, 音樂學科, 音樂教育學科 등이다. 그 전공 영역은 성악, 작곡, 피아노, 판악, 현악, 오르간, 국악, 타악, 이론 등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피아노과와 관현악과를 포함하여 모든 기악 음악(instrumental music)에 관한 것을 성악(vocal arts)과 구분하여 器樂 音樂教育(instrumental music education)으로 한정시켜 말하고자 한다.

音樂大學 내에 기악과(관현악과, 피아노과 포함)를 독립된 科로서 운영하고 있는 大學은 서울大, 延世大, 梨花女大, 慶熙大, 漢陽大, 中央大, 嶺南大, 淑明女大, 啓明大, 曉星女大 등이고, 藝術大學 또는 단과대학의 音樂科 내에 기악 專攻을 두고 있는 대학은 慶北大, 東亞大, 世宗大, 釜山大, 忠南大, 誠信女大, 祥明女大, 同德女大, 韓國敎員大, 東義大, 서울市立大, 安東大, 江陵大, 釜山女大, 群山大, 昌原大 등이며, 사범 대학 음악교육과 안에 기악 전공을 두고 있는 大學은 江原大, 慶尙大, 檀國大, 圓光大, 慶南大, 淸州大, 全北大, 濟州大, 朝鮮大, 公州師大, 牧園大, 培材大 등이며 宗教音樂科(교회음악)

악과 포함) 안의 기악 전공으로는 長老會神學大, 서울神學大, 高神大, 피어선神學校 등이 있다.

美國의 경우 4년제 大學의 음악과 교육의 專攻領域은 Vocal Arts, Winds & Percussion, Strings, Organ & Keyboard Instruments, Accompanying, Jazz, Guitar, History & Literature, Theory, Choral Conducting, Instrumental Conducting, Choral & Church Music, Music Education, Composition, Piano Pedagogy 등이 있는데 기악 음악을 제외한 전공 영역이 많은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大學 音樂專攻 영역 중에서 기악(피아노와 관현악) 등 몇 가지 유형의 전공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特徵이라 할 수 있다.

## 2) 피아노 專攻 教育의 當面課題

기악 음악교육 중에서 가장 저변 人口가 많고 규모를 갖춘 전공 부분이 피아노라고 할 수 있겠다. 많은 大學들이 獨立된 피아노과를 운영하고 있거나, 음악학과 안에 피아노 전공을 두고 있다. 그에 따라 피아노 專任 教授도 상대적으로 많으며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체계적인 디파트먼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피아노과 운영상의 당면 과제를 살펴 보면,

첫째로 대부분 大學의 피아노 전공 학습이 技巧인 면이나 技術인 면을 중요시 하며, 피아노 문헌을 포함한 全體 음악 예술에 대한 폭 넓은 理解를 등한시 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피아노를 演奏하는 테크닉은 외국에 비하여 상당히 앞서 있거나 뒤지지 않는 반면에, 그 테크닉을 理論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음악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의 부족을 말하고 싶다. 그것들은 대개 피아노 문헌, 音樂史, 樂曲分析, 음악 문헌 연구 등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커리큘럼 자체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설령 어느 음대에서 이와 같은 理論科目들이 開設되어 있다 하더라도 학생에게 별로 강조되지 않고 있거나 교수 방법면에서 전문적인 學問 연구의 깊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에게 그 重要性과 必要性을 깊이 인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美國의 Julliard, Yal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niversity of Oregon 등의 음악대학들은 이러한 면에서 상당히 進歩된 음악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미국 大學의 커리큘럼은 <표 1>, <표 2>,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에게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테크닉을 요구하고 있는 동시에 문헌 및 재료, 피아노 레퍼토리, 음악사, 이론, 실내악, 건반 연구, 피아노 문헌, 피아노 教授法 등의 필수 과목과 기타 선택 科目을 마스터함으로써 포괄적인 음악 교육을 통한 全體 음악 예술에 대한 폭 넓은 理解가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표 1>, <표 2>, <표 3>에서는 음악 교과외의 General Education Requirements와 Foreign Language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美國에서는 음악 교과가 아닌 다른 교과도 반드시 이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일반 학문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표 4>,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다 專門적인 적성에 맞는 영재 교육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音樂大學에는 一般 교양 선택 과목에 대한 강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음악 專攻에 관한 강좌만 개설되어 있다. 또한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학점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독일의 음악교육은 표에서와 같이 必須 科目에 대한 이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래에 서울대를 비롯한 극히 일부 大學에서 作曲科가 작곡 전공과 이론 전공으로 專攻이 나누어지면서 작곡과 안의 이론 전공 교수가 피아노 전공 및 기악 전공 학생의 理論 강좌를 맡아서 보다 전문적인 영역에서 지도함으로써 기악 전공 學生에게 자신의 전공 領域을 포함한 全體 音樂 藝術에 대한 보다 專門적인 理論 교육을 통하여 피아노 및 기악 演奏 학문을 보다 체계 있게 이론적으로 돕고 있는 경우는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충실한 실제 연주 지도와 함께 이론 전공 교수가 체계 있고 전문적인 이론 지도를 잘 해 주었을 때에 피아노를 비롯한 기악 음악교육은 質的·量的으로 보다 進歩된 교육을 이루어 나가리라고 생각된다.

둘째로 個人 전공 實技 과목에 할당된 개인 지도(individual teaching) 시간 배당이 改善되

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美國의 대학들은 보통 매주 45분 내지 50분의 개인 지도 시간(individual lesson)을 가지고 있으며 클라스 미팅이나 세미나를 담당 지도 교수의 재량에 의하여 주 1회 이상 또는 월 2회 이상씩 실시하고 있다. 개인 지도 시간에는 충분한 시간과 Extra Program을 통해 전공 實技 지도를 하며, 클라스 미팅이나 세미나 시간에는 현대 피아노 연주법이나 기타 연주상의 이론과 問題點을 프리 토킹하거나, 학생 스스로가 준비한 曲의 特徵이나 과제곡을 學問적으로 분석 연구하여 발표한 뒤에 서로가 느끼고 공부한 내용을 프리 토킹함으로써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 곡의 藝術性을 깊이 있게 체험하며 폭 넓은 학문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학교 내외의 사정에 의하여 상당 수가 정규의 개인 지도 시간에도 많이 미달되어 있고, 그나마 세미나 시간도 상당 수의 대학에서 과 전체 학생을 한 클라스로 하여 형식적인 수업에 그치고 말아 충분한 개인 교수가 되지 않고 있어 大學 음악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 점의 개선책이 점차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째로 대부분 大學의 도서관에 음대생의 셀프 스터디를 위한 도서 및 자료의 불충분함이 개선되어야 한다. 정규 수업 시간외에 학생 각자가 셀프 스터디를 많이 해야만 하는데, 演奏를 도와 줄 수 있는 이론적인 전공 관계 서적이거나 자료의 빈약함 때문에 제대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 피아노 연주상의 순수한 테크닉과 음악적인 것 이외에 高度의 기악 음악 학습을 위한 生理的·心理的·精神的인 모든 영역을 포함한 이론들이 셀프 스터디를 통해서 폭 넓고 다양하게 학습함으로써 보다 생동감 넘치고 풍부한 상상력으로 창조적인 음악 예술을 表現할 수 있는 교육 환경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네째로 작곡과에서 전공을 작곡과 이론으로 나누는 것처럼 피아노과에서도 전공을 피아노와 반주(accompanying)로 분리하여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반주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없으나, 美國 남가주대학

의 경우 1947년에 반주 프로그램이 개설된 이래 현재는 B.M., M.M., D.M.A.學位를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는데 그 커리큘럼은 <표 2>와 같다. 석사과정 이상에서는 Accompanying Master Class, Vocal Accompanying Master Class, Instrumental Accompanying, Pedagogy of Accompanying, Song Literature 등이 있다. 독주자인 피아니스트가 경우에 따라서 어느 성악 곡이나 기악곡을 잘 반주할 수도 있겠으나 獨奏와 伴奏의 藝術性의 구분이 불분명한데 伴奏 專攻이 있음으로써 예술이 요구하는 音樂語法이나 表現을 더욱 창조적으로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이고 차원 높은 예술의 世界를 체험하게 하는 더 具體적인 기악 음악교육을 위하여 반주 전공 개설이 진요하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피아노 專攻에서도 피아노 전공과 Harpsichord 전공으로 세분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피아노 음악 영역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다른 영역의 音樂, 즉 쉐발로 樂器와 그 時代적인 음악(16~18세기초)을 체험하고 느껴봄으로써 르네상스 및 바로크 음악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보다 더 전문성을 띤 음악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된다.

### 3) 管絃樂 專攻 교육의 當面課題

음악대학의 기악 전공 중에서 피아노 전공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오케스트라 構成 요건에 맞는 專攻들로 되어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전문적인 기악 음악교육보다는 학교 오케스트라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는 현실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대개의 絃樂 專攻은 전임 교수의 지도 하에서 교육되고 있으나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트럼펫, 호른 등 管樂과 打樂 전공 영역은 거의 시간 강사에 의하여 교육되고 있기 때문에 일관되고 안정된 지도가 부족하고, 교내에서 교수와 학생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결여되고 있는 점이 점차 개선되어야 한다.

University of Oregon처럼 미국 대학들은 <표 6>에서 보듯이 많은 기악과 전공 교수들 대부분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기악 專攻 實技 과목외에 History, Theory,

Conducting, Analysis, Musicianship 등의 科目을 가르치고 있다. 이들 기악과 교수들은 전임 교수들로서 기악 음악교육과 一般音樂理論 교육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관현악 전공 교수의 완전 專任 제도가 점차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당국과 학교 당국의 연구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鑾樂 전공 학생이나 학교 합창 단원이 정기 연주회를 비롯한 각종 연주회를 위하여 정규 교과 시간외의 시간을 그 연습으로 소모하고 있으며, 오케스트라 단원인 관현악 전공 학생들 또한 일정한 수준의 演奏를 위해서 학교의 정규 시간 이외에 더 많은 과외 시간의 리허설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다른 전공 학생에 비하여 인격 도야를 위한 敎養 과목과 기타의 이론 과목에 소홀해지는 경향으로 인하여 個人的 발전 가능성(음악학, 악식론, 음악 분석 등)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관현악 전공 학생은 필수 또는 선택 과목으로서 合奏 시간 강의를 받고 있다. 이때 오케스트라 지휘 교수는 학생 개개인의 가능성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專門性이 더욱 요구되어지며 자질 향상을 위한 부단한 연수가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적지 않은 대학의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학위나 학문적 연구의 전문성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다. 적어도 大學의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How to Teach'에 대한 깊은 研究와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전문적 교수 방법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규 코스를 밟아 지휘 공부를 했거나, 지휘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學問의 부단한 研究를 한 지휘 학문의 전문가가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大學의 오케스트라 지휘자에 대한 정책적인 특별 연수, 해외 연수 및 유학 장려책이 크게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全國의 각 市廳과 크고 작은 연주 단체의 활발한 연주 활동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의 풍요롭고 윤택한 정서 생활 함양에 至大한 공헌을 하고 있는 음악 예술인을 길러 내는 大學 음악교육, 특히 器樂音樂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보다 나은 관현악 合奏 敎授 方法의 개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세째로 絃樂 전공 영역에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전공 이외에 하아프의 전공을 개설하여, 하아프 人口의 저변 확대가 점차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 외에 관현악 전공 학생을 위한 충분한 리허설 룸의 확보 문제, 실내 앙상블의 효율적인 指導 方法의 문제, 피아노 전공 영역에서 거론했던 개인 지도(individual lesson)시간의 배당 문제, 專攻 實技에 치우친 나머지 演奏를 뒷받침하는 음악 理論에 소홀한 문제, 셀프 스터디 여건 조성에 필수적인 도서 및 자료의 확충 보완과 뮤직 라이브러리 구비 문제, 지도 교수의 교수법에 대한 연구 문제 등등 적지 아니한 課題를 가지고 있으나, 학교와 교육 환경의 실정이며 의치 못하여 미비된 것은 앞으로 점차 改善되어져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과제는 師範大學의 음악교육학과와 일반 音樂大學은 같은 악기가 전공일지라도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이 엄연히 달라야만 하는데도 일부 大學에서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 3. 結 言

위에서 단편적으로 현행 우리나라 대학의 기악 음악교육의 현황과 그 당면 과제를 살펴 보았는데 보다 바람직한 器樂 음악교육을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器樂科 안에 具體的인 전공 영역, 예를 들면 피아노과의 피아노 전공, 반주 전공, Harpsichord 전공 그리고 현악과의 하아프 전공 등을 증설 또는 개설하여 그 分野의 학문이 구체적 전문 교육으로 되어야 한다.

둘째로 敎授 方法의 개선으로 전공 실기 이외의 學問과 더욱 깊은 연계성을 갖게 하고 전문적이고 충실한 理論 敎育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론 전공의 교수 요원이 보강되어야 한다.

세째로 個人指導 시간 배당 등의 커리큘럼의 수정·보완이 계속적으로 있고 개선되어야 한다.

네째로 음악 도서관을 갖추어 보다 多樣하고 풍부한 專門 서적, 악보, 스코어, 음반 및 각종

시청각 자료 등을 통하여 셀프 스터디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좋은 敎育 환경으로 점차 개선되어 지야 한다.

다섯째로 기악 음악 전공의 각 악기 단위별로 충실한 敎育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수의 전임 교수가 확보되게끔 힘써야 한다.

여섯째로 大學 오케스트라 지휘 교수를 비롯한 각 음악과 교수에 대한 해외 연수 기회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일곱째로 음악 대학원에 점차로 박사학위 과정이 신설 또는 증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에 나열한 것과 같은 여러 가지의 개선점보다도 앞서는 것은 음악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교수가 使命感을 가지고 敎育에 임하되, 끊임없는 研究와 研修로 敎育의 質을 向上시키고 敎育 環境을 改善시켜서 學界와 社會 發展에 기여해야만 하는 것이다. \*

□ 附 錄 □

(표 1) 남가주大(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음대의 피아노와 Harpsichord 전공 커리큘럼

구	분	1st Year	2nd Year	3rd Year	4th Year
Private Instruction		2/2	2/2	2/2	2/2
Ensemble, two piano		1/1			
Large Ensemble		1/1	1/1		
Functional Skills, keyboard		2/2	2/2		
Aural Skills		1/1	1/1	1/1	
Theory		3/3	3/3		
Performance Forum		1/1			
Freshman Writing		4/4			
Piano Repertoire		1/1			
Music History and Literature			3/3	3/3	2/2
Accompanying				2/2	
Baroque Interpretation				/2	
Chamber Music Ensemble				1/1	1/1
Orchestration				2/	
Counterpoint				/2	
Choral or Instrumental Conducting				2/	
Piano Pedagogy					2/2
Electives, Music of Letters, Arts and Sciences					6/6
General Education, Letters, Arts and Sciences			4/4	4/4	4/4
Recital					0
		16/16	16/16	17/17	17/17

〈표 2〉 남가주대의 반주(accompanying)専攻 커리큘럼

구	분	1st Year	2nd Year	3rd Year	4th Year
Private Instruction, piano		2/2	2/2	2/2	
Ensemble, 2 piano		1/1			
Large Ensemble		1/1	1/1		
Aural Skills		1/1	1/1	1/1	
Functional Skills, keyboard		2/2	2/2		
Theory		3/3	3/3		
Performance Forum		1/1			
Freshman Writing		4/4			
Piano Repertoire		1/1			
Music History and Literature			3/3	3/3	
Accompanying, Private Instruction				2/2	2/2
Accompanying class				2/2	2/2
Orchestration and Counterpoint				2/2	
Choral or Instrumental Conducting					2/
Diction					2/2
Song Literature					2/2
Piano History and Literature					2/2
General Education/Music Electives			2/2		/2
General Education/Letters, Arts and Sciences			4/4	4/4	4/4
Recital					0
		16/16	18/18	16/16	16/16

〈표 3〉 남가주대의 현악 전공 커리큘럼

구	분	1st Year	2nd Year	3rd Year	4th Year
Private Instruction		4/4	4/4	4/4	4/4
Large Ensemble		1/1	1/1	1/1	1/1
Chamber Ensemble		1/1	1/1	1/1	1/1
Aural Skills		1/1	1/1	1/1	
Keyboard Instruction		2/2	2/2		
Theory		3/3	3/3		
Performance Forum		1/1			
Foreign Language		4/4			
Freshman Writing				4/4	
Music History and Literature			3/3	3/3	
Orchestration and Counterpoint				2/2	
Interpretation of Baroque Music				2/	
Historical Survey of String and Piano Chamber Music				/2	
String Pedagogy					2/2
Orchestra Repertory					2/
Conducting, Instrumental					/2
General Education, Letters, Arts and Sciences					8/8
		17/17	15/15	18/18	18/18

〈표 4〉 독일 기악 전공의 교과과정(피아노 제외)

	함부르크국립음대	문첸국립음대
권	전공실기 피아노 부전공 리듬학 실내악	전공실기 실내악 : 현악합주, 현악실내악, 관악앙상블, 관악실내악, 챔버뮤직
수	오케스트라 독보와 실내악지도 화성법 대위법 가창청음	오케스트라 음악교육학 현악연구와 세미나 플룻연주자문 위한 세미나 R. 슈만의 분석
과	악기론 악곡분석 음악문헌연구	악기론, 현대악기음색론 바로크악기의 대위법 Brahms의 작품 연구
목	음악사 악보학	음악사 음향학
선택과목	현대음악 옛날음악 이테리어	음악심리 무대매너와 음악의 정당성 녹음과 음향지도 바하 비평론 Pfitzner의 "Palestiana"

\* 음악예술('87. 7월호), "세계 각국의 음악 교육 기관 실태 비교", pp.43~44 참조했음.

〈표 5〉 독일 피아노 전공의 교과과정

	함부르크국립음대	문첸국립음대
권	전공실기 반주법 리듬학 합창	전공실기 피아노음악의 역사 음악교육학 피아노교육 방법 바로크악기 대위법
수	화성법 대위법 가창청음 악기론	20C 실내악분석 R.Schumann 분석 Brahms 작품 연구 Piano 실내악
과	악곡분석 음악문헌연구 음악사 악보학	음악사 음향학 악기론, 현대악기와 음색론 합창
선택과목	현대음악 옛날음악 이테리어	음악심리학 Bach 비평론 무대매너와 음악의 정당성 녹음과 음향지도법

\* 음악예술('87. 7월호), "세계 각국의 음악 교육 기관 실태 비교", pp.43~44 참조했음.

〈표 6〉 University of Oregon 의 faculties

이름	학위	전공영역
Bernard McWilliams	D.M.A.	Violin, Viola, Musicianship
Charles Dowd	M.A.	Percussion, Jazz Studies
Dean Kramer	D.M.A.	Piano, History
Doris Allen	M.A.	Piano Pedagogy, Piano class
Edward Kammerer	M.M.	Horn, Jazz Studies
J.Robert Hladky	Mus. Doc.	Cello, Double Bass
J.Robert Moore	D.M.A.	Oboe, Saxophone
Jeffrey William	D.M.A.	Trombone, Low Brass
John Hamilton	D.M.A.	Organ, Harpsichord, History
Lawrence Maves	M.Mus.	Violin, History
Marlene Thal	D.M.A.	Piano, Piano pedagogy
Peter Bergquist	Ph.D.	History, Theory, Bassoon
Richard Trombley	D.M.A.	Flute, Analysis
Wayne Bennet	Ph.D.	Clarinet, Instrumental Conducting